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본격화

송정역·광주역·송암·소촌산단 등 5개 유형·51곳 지정
시의회에 ‘전략계획 변경안’ 제출...6월 심의·7월 확정 공표

광주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을 완료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의회에 ‘2025광주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는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새롭게 반영해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주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한다. 계획안을 확정하면 오는 6월

중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계획안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사업 종류, 면적 규모 등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5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51개소를 지정했다.
최소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기반형은 송정역, 광주역, 송암·본촌·소촌산단 등 5개소를 지정했다.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7개소)·일반근린형(17개

소)은 금남로, 충장로, 발산마을, 역사문화마을 등 24개소다.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 16개소, 우리동네살리기형 6개소가 지정됐다.
상권 회복을 위해 대인·산수·무등·말바우·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8개소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포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각 구정별로 여건에 맞춰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광주-남평 입체교차로 임시우회도로로 운영

광주도시공사는 광주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중 회재로 입체교차 공사를 위해 임시우회도로를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재로 입체교차 공사는 산업단지 인근 개동마을 민원해소를 위해 당초 평면교차 형식에서 입체교차 형식으로 변경하는 공사로, 기존 소규모 통로박스를 철거하고 새롭게 다이아몬드형(up-down) 입체교차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임시우회도로 운영기간은 3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4개월이며 임시도로 구간은 500m이다. 기존 4차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당초 주행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km로 감속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임시도로 운영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를 진행하겠으며, 광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난 2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 공동 유해발굴 TF 장병들이 6·25 전사자 유해를 찾기 위해 지뢰 제거와 기초발굴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지난 4월1일부터 5월22일까지 발굴된 유해는 총 321건이며 유품은 2만2808점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남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시동

유치 추진단 발족...각계 전문가 22명 참여

전남도가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전남도는 29일 지역 정·재계와 학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추진단’을 꾸려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유치 추진단은 고문으로 황주홍·서삼석·윤영일 국회의원과 박재순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회장을 위촉했다. 또 전남도의회·완도군의회, 전남대·목포대·순천대, 광주전남연구원, 여수·순천상공회의소,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

본부,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남지회 등 관련 분야 기관·단체 전문가 22명이 참여했다.
국립난대수목원은 200~500ha 규모에 1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산림청은 6월 대상지 공모, 7월 현장심사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해 8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유치 추진단은 전남의 완도수목원이 최적지임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남 유치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생태·경관·관광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입지선정위원회 현장 심사 평가를 통해 후보지인 장흥 천관산지구, 강진 부용산지구, 해남 달마산지구, 완도 완도수목원지구, 진도 지력산지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완도수목원을 유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완도수목원에는 봄가시나무, 구실잣

밤나무, 동백나무 등 780여 종의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연중 기온 14℃ 이상 난대수목이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국립난대수목원 입지로 최적지라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었다.
전남도는 완도수목원이 보유한 국내 최대 난대림과 완도군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연계해 세계적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초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7월 산림청 현장심사와 타당성평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임 야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맹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합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닌
- ▶ 도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H.010-6834-7400

文대통령, 내달 9-16일 유럽3국 순방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마지막 순방국인 스웨덴을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과학기술·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또 협력적 노사관계의 실질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도 공유한다. /김진수기자

순천에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행안부 선정...전남 동부권 유통 거점 운영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순천에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 대상지로 순천과 원주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지역사회에 흩어져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시설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

공하고 공동 홍보·마케팅, 기업 간 교류·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과 충남을 선정해 데 이어 올해 사업 대상지로 순천시와 원주시를 낙점했다. 이들 지역에는 각각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순천시 도시재생지역 내 빈집 리모델링으로 조성되는 전남 유통지원센터는 제품 판매장과 기업 교육·교류를 위한 공유공간, 열린 카페 등으로 꾸며져 전남 동부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유통거점으로 운영된다. /순천=남정민기자

광주환경공단 ‘열린혁신위원회’ 발대

외부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

광주환경공단은 시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단의 열린혁신 발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ECO-G 열린혁신위원회’를 발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김강열 이사장을 비롯한 내부직원 20여명과 열린혁신위원장으로 호선된 문기전 YMCA 사무총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열린혁신위원회는 ▲시민참여 ▲맞춤형서비스 ▲일하는방식 혁신 ▲공공데이터개방 등 4개 분야에 걸쳐 지역에서 활동하는 외부전문가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1년까지이다.
특히 공단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

해 ▲인사 및 조직분야 ▲시민사회 분야의 행정파트 ▲하수처리 ▲음식물 및 에너지 분야의 기술파트로 분야를 세분화해 4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이들은 공단의 열린혁신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제시, 유관기관과의 협업 활동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열린혁신과제가 완료된 이후에는 평가와 환류를 통해 이년도 열린혁신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시민 및 전문가와 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민주도의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 운영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 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062)222-1095, 1096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컴퓨터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판매
- 임대 ▪A/S

T.375-588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낮은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없음 ◀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